

## 주요 노동동향

### ● 생산 및 물가 동향

#### ◆ 2016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3.3% 증가(전월대비 보합)

- 제조업 생산은 영상·음향기기(-26.0%), 기타운송장비(-10.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17.8%), 기계장비(13.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3.6%)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10.3%), 금융·보험(5.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전월대비 0.3% 증가).

#### ◆ 2016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2.3%)는 감소하였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9%)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전월대비 1.2%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9.3%)에서 감소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0.7%)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함(전월대비 3.4%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건축(-0.5%) 및 토목(-5.1%)에서 모두 줄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12.8%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발전·통신, 항만·공항 등 토목(-22.7%)에서 감소하였으나 주택, 사무실·점포 등 건축(82.0%)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8.3% 증가함.

### ◆ 2016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

### ◆ 201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4% 상승)

- 2017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2.43(2015년=100)으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함(전월대비 0.9%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5.3%), 음식·숙박(2.2%), 교육(1.4%) 등에서 상승한 반면, 주택·수도·전기·연료(-0.3%)는 하락함.
  - 2017년 1월 생활물가지수는 102.63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함(전월대비 1.3%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14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1/4	2/4	3/4	4/4 <sup>p</sup>	연간 <sup>p</sup>	12월 <sup>p</sup>
생산	광공업 생산	-1.7	-0.7	0.0	-20	0.0	-0.9	-1.5	-0.2	0.0	-0.6	-2.1	-0.2	1.0	0.6	2.7	1.0	4.3(-0.5)
	제조업 생산	-1.8	-0.8	0.0	-22	-0.1	-1.0	-1.4	-0.4	0.1	-0.6	-1.8	-0.4	1.1	0.7	2.9	1.0	4.4(-0.4)
	출하	-2.3	-1.0	-0.2	-1.3	-0.2	-0.7	-1.3	0.8	0.3	-0.3	-1.7	-0.8	1.5	0.0	2.1	0.6	4.0( 0.6)
	내수	-2.8	-1.2	-0.4	-26	0.2	-0.7	-0.1	1.0	1.6	0.5	0.5	0.9	1.0	0.0	3.7	1.5	6.0( 0.3)
	수출	-1.7	-0.6	0.1	0.3	-0.6	-0.6	-2.5	0.5	-1.4	-1.0	-4.2	-2.8	2.0	0.0	0.1	-0.2	1.6( 1.1)
	서비스업생산	0.8	1.7	0.7	2.7	2.2	2.8	2.5	2.8	3.1	2.9	3.7	2.8	3.7	3.6	2.1	3.0	1.7( 0.3)
소비	소비재 판매	0.2	1.1	0.7	1.9	1.6	1.6	2.9	3.2	5.7	3.4	4.0	4.6	6.2	3.6	2.4	4.1	1.6(-1.2)
투자	설비투자	-15.4	-10.0	-4.7	5.1	4.6	8.4	5.2	10.0	1.7	6.2	-1.3	-7.1	0.8	-4.9	5.6	-1.3	10.0( 3.4)
물가		1.1	1.6	1.4	1.0	1.3	0.6	0.5	0.7	1.1	0.8	0.8	1.1	0.9	0.9	1.5	1.0	2.0( 0.9)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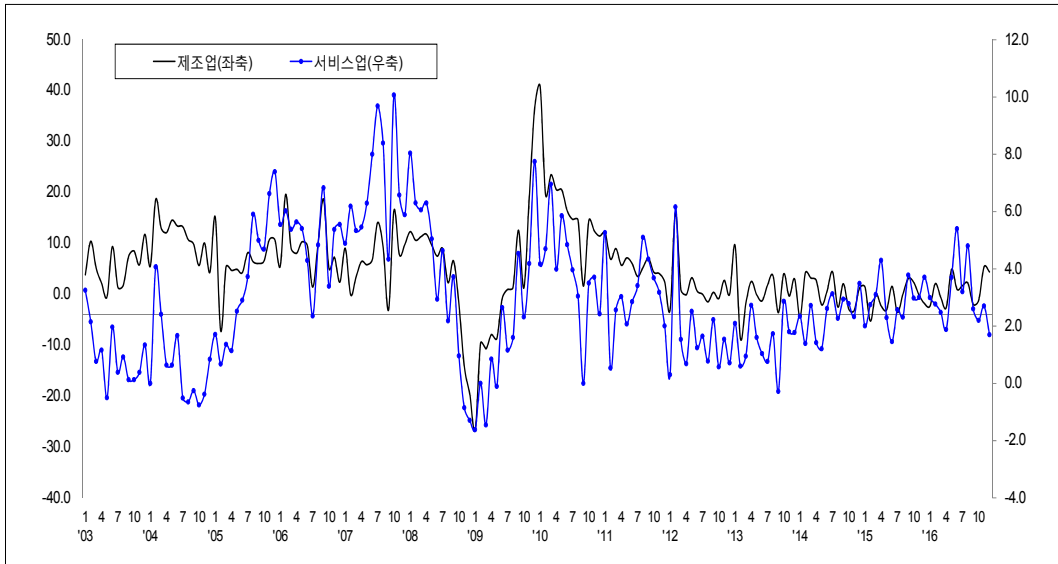
3) 물가상승률은 2017년 1월 기준임.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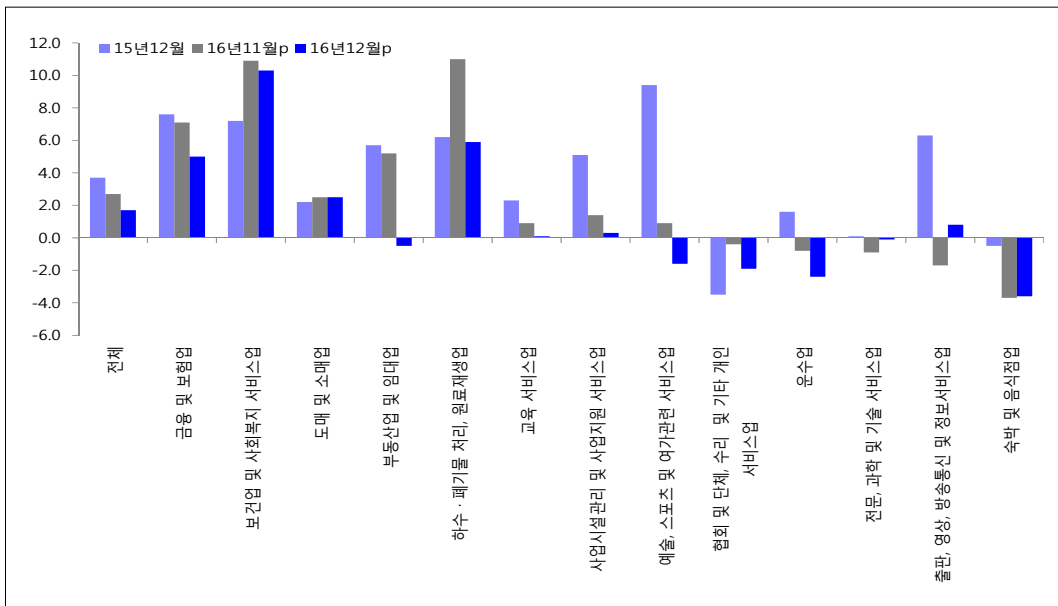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6년 11월, 12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7. 2), 『2016년 12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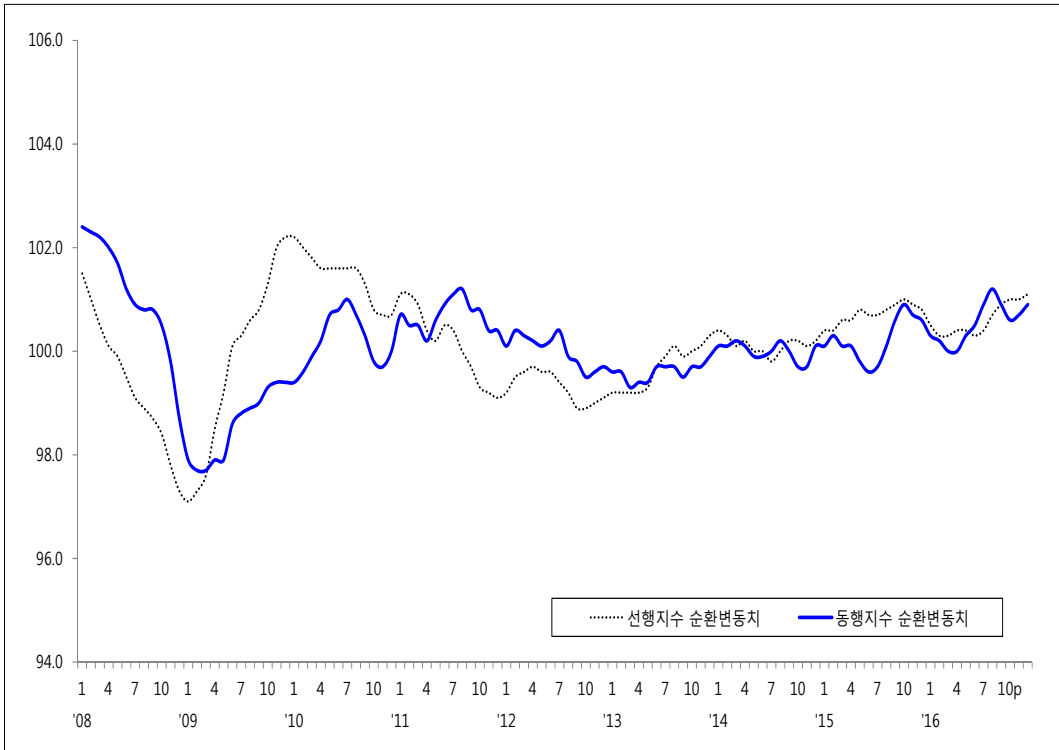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 고용 동향

### ◆ 취업자 증가폭 둔화세 지속

- 2017년 1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6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5천 명(1.0%)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108천 명(0.7%))보다 여성(157천 명(1.4%))의 증가가 두드러짐.
  -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0.8%(361천 명)를 넘어섬.
- 2017년 1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 성별로 보면 남성(72.3%)은 0.1%p 감소한 반면, 여성(50.6%)은 0.3%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월 중 취업자는 25,68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3천 명(1.0%) 증가함.
  - － 성별로 보면 남성은 105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반면, 여성은 138천 명 증가해 기존의 증가추세를 완만히 이어감(그림 1 왼쪽 참조).
  - － 여성의 취업자 증가폭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취업자 전체 증가가 둔화추세를 보임.
- 2017년 1월 중 고용률은 58.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 영향으로 여성 고용률은 0.3%p 증가한 48.7%를 기록한 반면, 남성 고용률은 0.2%p 감소한 69.5%를 기록함.
  -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한 15~64세 고용률은 0.3%p 상승한 65.5%를 기록함(그림 1 오른쪽 참조).
- 2017년 1월 중 실업자는 1,0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천 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 － 청년(15~29세) 실업률은 8.6%로 2016년 1월(9.5%)에 비해 0.9%p 감소함(그림 2 왼쪽).
  - － 청년층 중심으로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늘어나 노동시장 밖에서 더 활발히 구직활동을 하는 영향이 반영됨.
- 2017년 1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9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6천 명(0.6%) 증가함.
  - －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취업준비’인 경우가 83천 명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2016년 10월 이후 추세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2 오른쪽).
  - － 2015년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오던 ‘재학·수강’은 최근으로 올수록 빠르게 감소폭

이 줄어들어 2017년 1월 6천 명 감소함.

- 한편 ‘연로’의 사유가 72천 명 증가해 ‘취업준비’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던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88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감소해 감소추세를 이어감.

〈표 1〉 주요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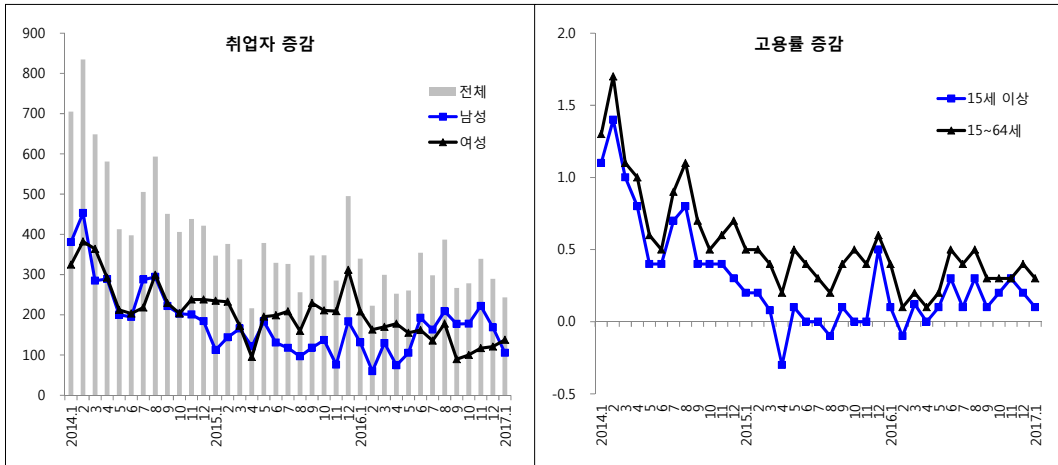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1월	2016 1월	2016		2017 1월
							11월	12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02	42,775	43,239	43,537	43,561	43,601
	(증가율)	(1.0)	(1.2)	(0.9)	(1.1)	(1.1)	(0.7)	(0.7)	(0.8)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66	26,094	26,433	27,446	27,035	26,698
	(증가율)	(2.6)	(1.4)	(1.3)	(1.7)	(1.3)	(1.3)	(1.1)	(1.0)
	취업자	25,599	25,936	26,241	25,106	25,445	26,592	26,168	25,689
	(증가율)	(2.1)	(1.3)	(1.2)	(1.4)	(1.4)	(1.3)	(1.1)	(1.0)
	증가수	(533)	(337)	(300)	(347)	(339)	(339)	(289)	(243)
	남성	(266)	(132)	(149)	(113)	(131)	(222)	(168)	(105)
	여성	(267)	(205)	(151)	(235)	(208)	(117)	(121)	(138)
	참가율	62.4	62.5	62.8	61.0	61.1	63.0	62.1	61.2
	남성	(74.0)	(73.8)	(73.9)	(72.7)	(72.4)	(74.0)	(73.1)	(72.3)
	여성	(51.3)	(51.8)	(52.1)	(49.8)	(50.3)	(52.5)	(51.4)	(50.6)
	고용률	60.2	60.3	60.5	58.7	58.8	61.1	60.1	58.9
	남성	(71.3)	(71.1)	(71.1)	(69.9)	(69.7)	(71.7)	(70.8)	(69.5)
	여성	(49.5)	(50.0)	(50.2)	(48.0)	(48.4)	(50.9)	(49.7)	(48.7)
15~ 64세	실업자	937	976	1,025	988	988	854	867	1,009
	실업률	3.5	3.6	3.8	3.8	3.7	3.1	3.2	3.8
	남성	(3.6)	(3.7)	(3.9)	(3.8)	(3.8)	(3.1)	(3.1)	(3.8)
	여성	(3.5)	(3.6)	(3.6)	(3.7)	(3.7)	(3.1)	(3.3)	(3.8)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36	16,681	16,806	16,091	16,526	16,903
	(증가율)	(-1.5)	(0.8)	(0.4)	(0.2)	(0.7)	(-0.1)	(0.3)	(0.6)
	참가율	67.8	68.3	68.7	67.3	67.7	68.9	68.5	68.0
	남성	(78.6)	(78.6)	(78.9)	(78.0)	(77.9)	(79.0)	(78.5)	(78.0)
	여성	(57.0)	(57.9)	(58.4)	(56.6)	(57.4)	(58.7)	(58.4)	(57.8)
	고용률	65.3	65.8	66.0	64.8	65.2	66.6	66.3	65.5
	남성	(75.7)	(75.7)	(75.8)	(75.1)	(75.0)	(76.5)	(76.0)	(75.0)
	여성	(54.9)	(55.7)	(56.2)	(54.5)	(55.3)	(56.7)	(56.4)	(55.8)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2), 『2017년 1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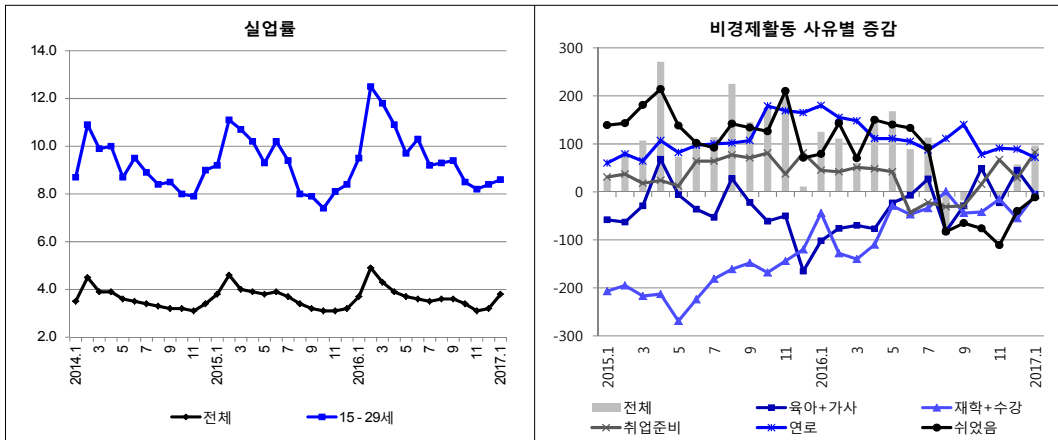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고 취업 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 50대 이상 중고령층에서 취업자 증가

○ 2017년 1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241천 명, 7.3%)과 50~59세(119천 명, 2.0%)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핵심 연령층인 20~40대는 모두 취업자가 감소함.

— 2016년 이후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60세 이상과 50대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

가며 취업자 증가를 견인함(그림 3 참조).

- 한편 2016년 상반기까지 10만 명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던 25~29세가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서서 취업자 증가 둔화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30대와 40대는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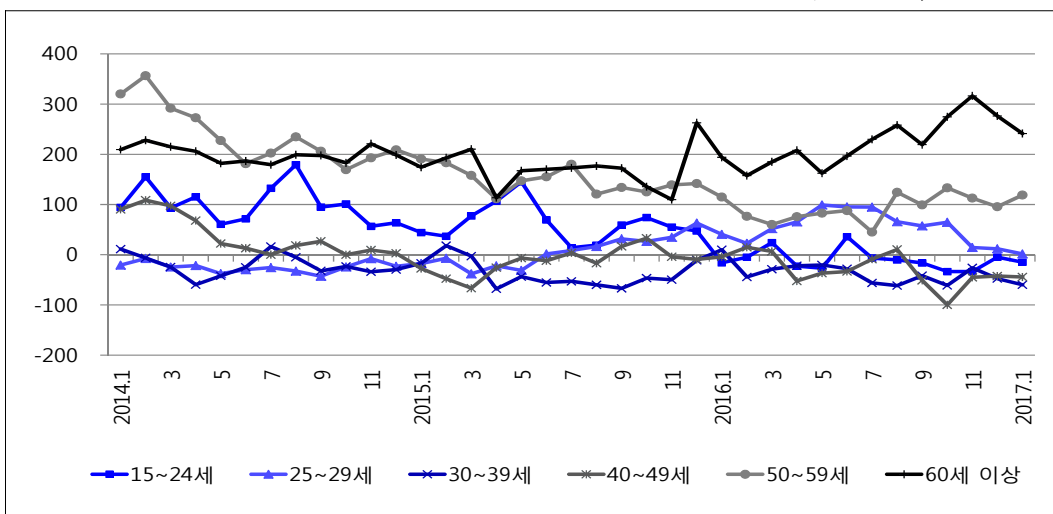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6		2017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5,106 (1.4)	25,445 (1.4)	26,592 (1.3)	26,168 (1.1)	25,689 (1.0)
15~19세	244 (9.1)	245 (0.1)	240 (-2.0)	282 (0.2)	260 (-7.9)	215 (-1.1)	242 (-0.6)	267 (2.6)
20~29세	3,625 (1.6)	3,693 (1.9)	3,746 (1.4)	3,635 (0.7)	3,682 (1.3)	3,721 (-0.4)	3,724 (0.2)	3,662 (-0.5)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674 (-0.3)	5,684 (0.2)	5,654 (-0.5)	5,655 (-0.8)	5,624 (-1.1)
40~49세	6,682 (0.6)	6,668 (-0.2)	6,640 (-0.4)	6,610 (-0.4)	6,606 (-0.1)	6,670 (-0.7)	6,619 (-0.6)	6,562 (-0.7)
50~59세	5,845 (4.3)	5,994 (2.5)	6,086 (1.5)	5,812 (3.4)	5,927 (2.0)	6,206 (1.9)	6,124 (1.6)	6,046 (2.0)
60세 이상	3,489 (6.1)	3,661 (4.9)	3,884 (6.1)	3,093 (6.0)	3,287 (6.3)	4,126 (8.3)	3,804 (7.8)	3,528 (7.3)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2), 『2017년 1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 자영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근로자 큰 폭으로 둔화

○ 2017년 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26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4천 명(0.4%) 증가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6,4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0천 명(2.7%)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처음임.
-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증가규모는 20만 명 중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임시근로자가 2016년 1월 대비 182천 명 감소하며 가파른 감소세를 주도함(그림 4 왼쪽).
- － 한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6년 1월 대비 105천 명 증가해 석달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64천 명 증가해 비임금근로자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그림 4 오른쪽).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6		2017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5,106 (1.4)	25,445 (1.4)	26,592 (1.3)	26,168 (1.1)	25,689 (1.0)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391 (-1.7)	6,259 (-2.1)	6,822 (2.3)	6,534 (2.2)	6,429 (2.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2.7)	1,581 (2.0)	1,561 (-1.3)	1,545 (3.1)	1,508 (-2.4)	1,592 (2.5)	1,584 (3.2)	1,572 (4.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0.7)	3,847 (-2.9)	3,800 (-1.2)	4,073 (2.6)	3,946 (2.8)	3,905 (2.8)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000 (-4.1)	952 (-4.8)	1,157 (1.0)	1,004 (-1.4)	953 (0.1)
임금근로자	18,743 (3.0)	19,230 (2.6)	19,546 (1.6)	18,715 (2.5)	19,186 (2.5)	19,770 (1.0)	19,635 (0.8)	19,260 (0.4)
상용근로자	12,156 (3.8)	12,588 (3.6)	12,974 (3.1)	12,304 (2.9)	12,813 (4.1)	13,088 (2.3)	13,103 (1.9)	13,067 (2.0)
임시근로자	5,032 (2.9)	5,086 (1.1)	5,104 (0.4)	4,898 (3.0)	4,917 (0.4)	5,146 (-2.8)	5,009 (-2.0)	4,735 (-3.7)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0.1)	1,469 (-5.6)	1,513 (-2.3)	1,456 (-3.7)	1,536 (2.5)	1,522 (0.5)	1,458 (0.1)
1~17시간	1,177 (0.4)	1,222 (3.8)	1,273 (4.2)	1,280 (3.7)	1,245 (-2.7)	1,260 (0.2)	1,322 (3.0)	1,316 (5.7)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2,494 (6.9)	2,614 (4.8)	2,594 (-2.2)	2,616 (1.0)	2,626 (0.5)
36시간 이상	21,220 (6.4)	21,535 (1.5)	21,346 (-0.9)	20,655 (0.7)	20,905 (1.2)	22,440 (1.9)	21,923 (1.1)	21,125 (1.1)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3.1	42.9	43.5	43.3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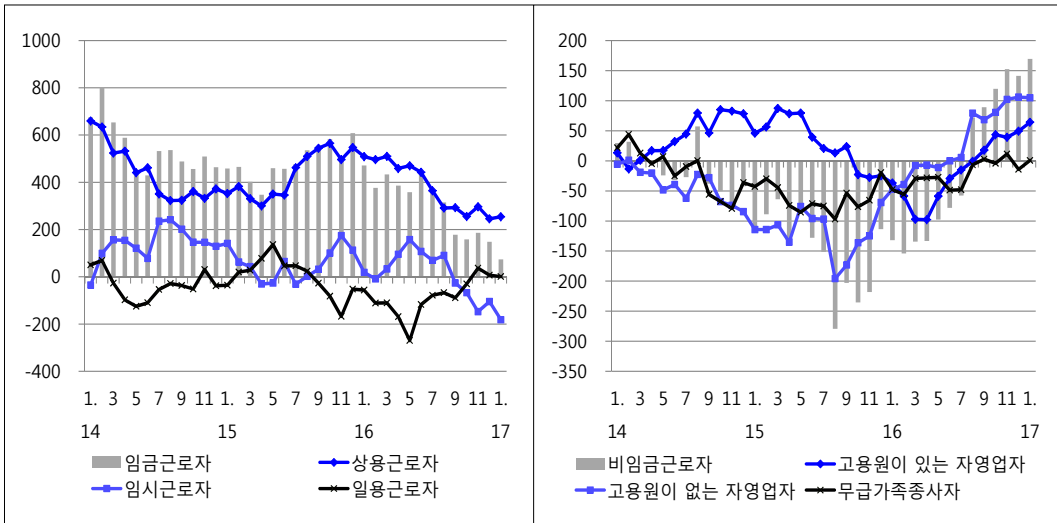
주 :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2), 『2017년 1월 고용동향』.

- 2017년 1월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94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4천 명(2.2%) 증가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1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0천 명(1.1%) 증가하였음.
- 특히 17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가 71천 명(5.7%) 증가해 증가율이 두드러짐.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하였음.

〔그림 4〕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 제조업 취업자 가파른 감소세 지속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7개월째 지속되며 감소폭이 확대되는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2017년 1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에서 160천 명(-3.5%) 감소해 모든 산업을 통틀어 가장 큰 감소를 했고, 뒤이어 운수업(-37천 명)과 가구 내 고용(-10천 명)에서 감소함(그림 5 참조).
- 반면 건설업 취업자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7년 1월 전년동월대비 85천 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를 함.
- 한편 감소세를 지속하던 도소매업이 31천 명 증가로 반전해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기존 증가추세를 이어 74천 명 증가함.
- 2014년 이후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던 농림어업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어 2016년 1월 대비 9천 명 감소에 그침.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6		2017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산 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5,106 (1.4)	25,445 (1.4)	26,592 (1.3)	26,168 (1.1)	25,689 (1.0)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983 (-9.5)	909 (-7.6)	1,368 (2.3)	1,021 (-2.3)	900 (-1.0)
광업	13 (-15.8)	14 (2.3)	19 (38.2)	10 (-44.4)	16 (67.4)	21 (21.4)	21 (27.3)	21 (30.2)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421 (3.3)	4,566 (3.3)	4,443 (-2.2)	4,437 (-2.5)	4,406 (-3.5)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2)	89 (-3.9)	86 (5.4)	91 (5.3)	82 (-15.8)	90 (-7.6)	90 (-0.4)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0.9)	96 (9.0)	87 (11.6)	91 (5.1)	99 (14.9)	95 (9.7)	94 (3.0)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758 (4.1)	1,775 (1.0)	1,947 (6.0)	1,932 (4.7)	1,860 (4.8)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872 (2.3)	3,747 (-3.2)	3,717 (-0.5)	3,755 (-0.6)	3,778 (0.8)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05 (-1.8)	1,438 (2.4)	1,401 (-1.0)	1,405 (-0.2)	1,401 (-2.6)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148 (3.8)	2,229 (3.8)	2,304 (3.3)	2,322 (5.1)	2,303 (3.3)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37 (6.5)	781 (6.1)	821 (4.3)	799 (2.8)	781 (-0.1)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98 (-7.6)	799 (0.1)	814 (2.4)	800 (0.9)	792 (-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499 (-1.5)	563 (12.8)	587 (6.4)	587 (6.3)	586 (4.1)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21 (-0.9)	1,080 (5.8)	1,107 (1.9)	1,111 (2.2)	1,103 (2.1)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198 (1.5)	1,238 (3.3)	1,305 (2.9)	1,298 (2.0)	1,262 (2.0)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827 (-5.8)	867 (4.9)	1,026 (3.0)	977 (3.9)	913 (5.3)
교육 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802 (4.4)	1,812 (0.5)	1,886 (2.9)	1,892 (2.6)	1,881 (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682 (10.4)	1,714 (1.9)	1,909 (4.7)	1,872 (4.2)	1,777 (3.7)
예술·스포츠·여가	394 (0.4)	424 (7.8)	406 (-4.3)	406 (2.0)	390 (-4.0)	423 (-0.5)	429 (7.6)	412 (5.6)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56 (-3.8)	1,247 (-0.7)	1,253 (-3.1)	1,252 (-2.9)	1,251 (0.4)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6)	95 (-26.6)	76 (-19.5)	64 (-13.7)	60 (-17.9)	66 (-13.2)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6)	16 (-11.4)	18 (72.8)	18 (-0.6)	14 (-25.0)	14 (-23.8)	13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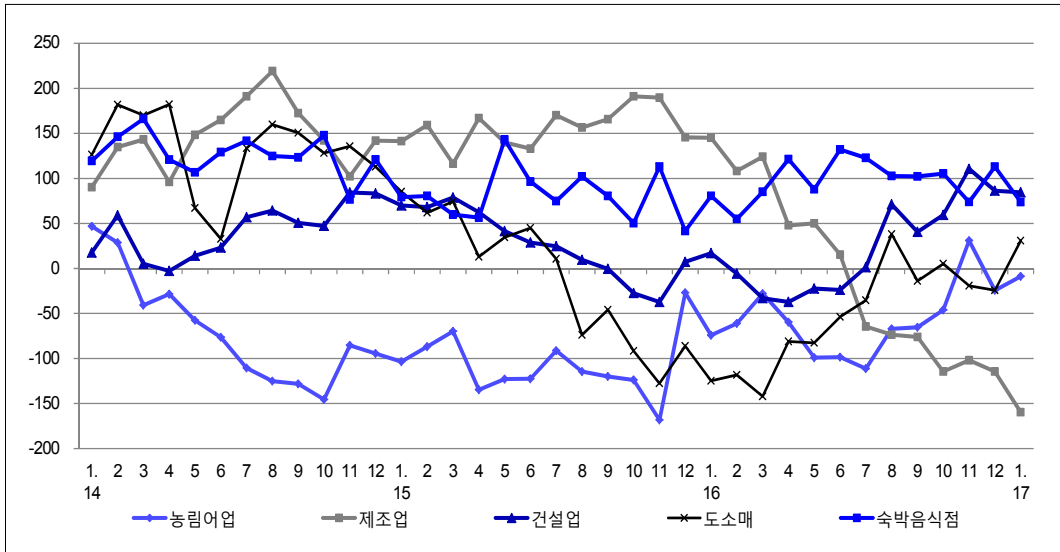
주 : 1)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2), 『2017년 1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6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5% 상승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9천 원(4.5% ↑)임.
  - － 2016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380천 원)과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495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5%, 4.8% 상승함.
  -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정액급여증가폭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20.8%)와 초과급여(6.8%)의 증가율 확대에 기인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6년 1~11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대비 4.0% 상승함.
  - －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4.0%, 3.0% 상승함.
  -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016년 들어서면서 1~2월 연속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2016년 1~11월 전년동평균대비 1.1%p 상승한 4.0%임. 이는 상용근로자 특별급여증가폭이 컸던 영향임.
- 2016년 11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 －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임금상승폭이 커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 － 2016년 1~11월 평균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평균 대비 3.0% 상승함.

### ◆ 2016년 12월 협약임금 인상률 3.3%

- 2016년 12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3%로 2015년 12월 인상률(3.7%)보다 0.4%p 하락함.
  - － 2016년 12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86.7%로 전년동월보다 더딤.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2013	2014	2015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 3.9)	3,190 ( 2.5)	3,300 ( 3.5)	3,246 ( 3.1)	3,062 ( 2.6)	3,375 ( 4.0)	3,199 ( 4.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 3.8)	3,378 ( 2.4)	3,490 ( 3.3)	3,430 ( 2.9)	3,233 ( 2.6)	3,569 ( 4.0)	3,380 ( 4.5)
	정액급여	2,578 ( 4.4)	2,660 ( 3.2)	2,749 ( 3.3)	2,734 ( 3.2)	2,747 ( 3.8)	2,824 ( 3.3)	2,823 ( 2.8)
	초과급여	184 ( 1.7)	201 ( 9.3)	216 ( 7.4)	216 ( 7.9)	214 ( 4.7)	224 ( 3.7)	229 ( 6.8)
	특별급여	537 ( 1.8)	516.4 (-3.7)	525 ( 1.6)	480 (-0.8)	271 (-9.4)	520 ( 8.4)	328 (20.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 6.5)	1,387 ( 0.7)	1,424 ( 2.7)	1,420 ( 2.6)	1,426 ( 4.2)	1,462 ( 3.0)	1,495 ( 4.8)
소비자물가지수		107.8 ( 1.2)	109 ( 1.3)	109.8 ( 0.7)	100.0 ( 0.7)	99.9 ( 0.8)	100.9 ( 0.9)	101.5 ( 1.5)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4	1.8	3.0	2.9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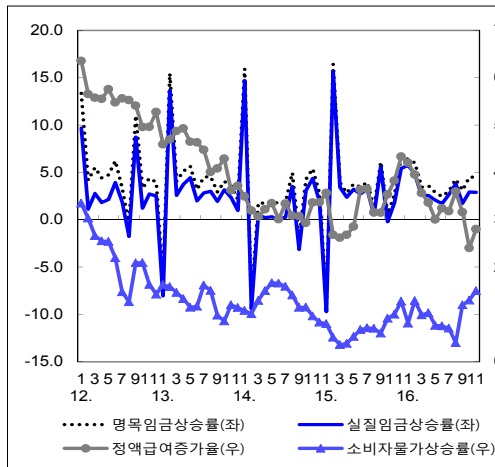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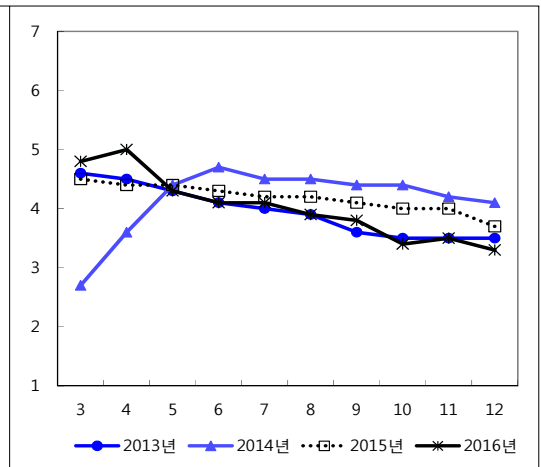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 2016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8%, 5.8% 상승

- 2016년 11월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폭(1.1%)은 전년동월대비 상당히 둔화(4.1%p↓)되었지만 특별급여증가폭은 전년동월대비 39.1% 상승함. 1차 금속제조업, 자동차 관련 산업 등에서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 임금협상타결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것으로 보임.
  - －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세부내역별 변화와 차이를 보임.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폭(3.2%)은 전년동월대비 0.2%p 확대되었으며, 특별급여는 대규모 사업체의 상승폭보다는 저조한 7.5%로 나타남.
- 2016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 동평균대비 각각 3.7%, 2.9% 상승함.
  - － 중소기업 사업체의 경우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0.2%p↑)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둔화(0.1%p↓)된 것으로 나타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5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소 계	2,836 ( 2.6)	2,938 ( 3.6)	2,901 ( 3.5)	2,800 ( 2.8)	3,008 ( 3.7)	2,907 ( 3.8)
	상용임금총액	3,008 ( 2.4)	3,110 ( 3.4)	3,069 ( 3.2)	2,956 ( 2.6)	3,185 ( 3.8)	3,072 ( 3.9)
	정액급여	2,504 ( 2.9)	2,577 ( 2.9)	2,566 ( 2.9)	2,569 ( 3.0)	2,648 ( 3.2)	2,651 ( 3.2)
	초과급여	172 ( 7.5)	184 ( 6.6)	183 ( 6.6)	183 ( 5.1)	197 ( 7.3)	202 (10.3)
	특별급여	332 (-3.6)	349 ( 5.3)	319 ( 3.9)	204 ( -3.8)	340 ( 6.5)	220 ( 7.5)
	비상용임금총액	1,390 (-0.1)	1,434 ( 3.2)	1,428 ( 3.0)	1,459 ( 5.9)	1,478 ( 3.5)	1,524 ( 4.5)
대규모	소 계	4,678 ( 5.2)	4,849 ( 3.7)	4,731 ( 3.0)	4,145 ( 0.3)	4,870 ( 2.9)	4,385 ( 5.8)
	상용임금총액	4,827 ( 5.3)	5,017 ( 3.9)	4,890 ( 3.2)	4,313 ( 1.1)	5,035 ( 3.0)	4,555 ( 5.6)
	정액급여	3,272 ( 5.8)	3,438 ( 5.1)	3,410 ( 4.9)	3,442 ( 5.2)	3,496 ( 2.5)	3,480 ( 1.1)
	초과급여	316 (16.9)	349 (10.4)	351 (12.1)	337 ( 1.7)	330 (-5.8)	333 (-1.1)
	특별급여	1,239 ( 1.5)	1,230 (-0.7)	1,129 (-3.7)	534 (-19.4)	1,209 ( 7.1)	742 (39.1)
	비상용임금총액	1,354 (11.1)	1,329 (-1.8)	1,335 (-1.4)	1,162 ( -8.5)	1,311 (-1.8)	1,250 ( 7.6)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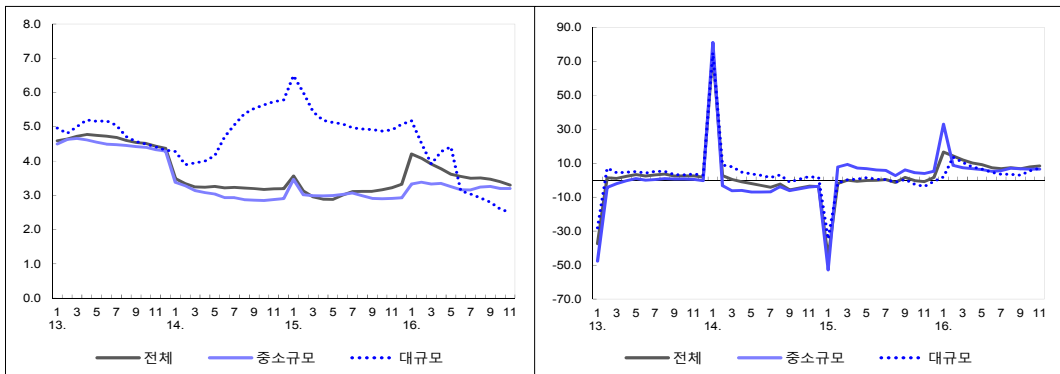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1~11월 평균 정액급여증가율과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 명목임금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폭 둔화에 기인함.

####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여가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6년 11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3%)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제조업(7.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8%),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6.5%) 순임.
  - 반면 여가관련서비스업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감소(-0.7%)했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8%), 숙박 및 음식점업(2.0%), 건설업(2.1%), 금융 및 보험업(2.5%), 교육서비스업(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은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은 1~2%대 임금상승률을 보임.
  - 2016년 11월 현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241천 원)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830천 원)임. 한편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67천 원)으로 나타남.
- 2016년 1~11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증가함.
  - 1~11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2%)이었으며, 협회·단체 및 기타서비스업(6.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4%) 부문의 임금상승률은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6%대를 기록함.



- － 1~11월 평균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045천 원)인 반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875천 원)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4	2015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 업	3,190 ( 2.5)	3,300 ( 3.5)	3,246 ( 3.1)	3,062 ( 2.6)	3,375 ( 4.0)	3,199 ( 4.5)
광업	3,480 (-2.1)	3,676 ( 5.6)	3,672 ( 5.6)	3,697 ( 5.0)	3,774 ( 2.8)	3,876 ( 4.8)
제조업	3,506 ( 4.0)	3,617 ( 3.2)	3,532 ( 2.6)	3,204 ( 1.6)	3,683 ( 4.3)	3,433 ( 7.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554 ( 0.2)	5,856 ( 5.4)	5,588 ( 3.8)	4,573 (-11.7)	6,045 ( 8.2)	4,830 ( 5.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812 ( 2.5)	2,945 ( 4.8)	2,896 ( 4.0)	2,809 ( 2.8)	3,067 ( 5.9)	2,992 ( 6.5)
건설업	2,497 ( 3.4)	2,591 ( 3.8)	2,577 ( 3.7)	2,541 ( 2.2)	2,657 ( 3.1)	2,596 ( 2.1)
도매 및 소매업	3,206 ( 1.2)	3,292 ( 2.7)	3,234 ( 2.4)	3,173 ( 6.3)	3,368 ( 4.1)	3,276 ( 3.2)
운수업	2,805 ( 2.7)	2,952 ( 5.3)	2,903 ( 5.3)	2,707 ( 3.2)	3,063 ( 5.5)	2,825 ( 4.3)
숙박 및 음식점업	1,785 ( 0.7)	1,824 ( 2.2)	1,817 ( 2.4)	1,829 ( 1.6)	1,875 ( 3.2)	1,867 ( 2.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05 (-0.8)	4,012 ( 2.7)	3,983 ( 2.6)	3,982 ( 4.1)	4,118 ( 3.4)	4,052 ( 1.8)
금융 및 보험업	5,234 ( 3.5)	5,488 ( 4.9)	5,414 ( 5.1)	5,113 ( 2.5)	5,608 ( 3.6)	5,241 ( 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23 ( 2.3)	2,478 ( 6.7)	2,458 ( 7.0)	2,390 ( 5.5)	2,589 ( 5.3)	2,520 ( 5.4)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19 ( 4.2)	4,561 ( 3.2)	4,425 ( 1.9)	4,205 ( 3.1)	4,710 ( 6.4)	4,490 ( 6.8)
사업서비스업	1,924 ( 2.2)	2,002 ( 4.1)	1,980 ( 3.8)	1,962 ( 2.8)	2,061 ( 4.1)	2,030 ( 3.5)
교육서비스업	3,375 ( 3.5)	3,483 ( 3.2)	3,501 ( 3.3)	3,182 ( 1.1)	3,571 ( 2.0)	3,265 ( 2.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00 ( 1.4)	2,772 ( 2.7)	2,750 ( 3.0)	2,672 ( 1.3)	2,835 ( 3.1)	2,741 ( 2.6)
여가관련 서비스업	2,398 ( 3.1)	2,512 ( 4.7)	2,456 ( 4.0)	2,459 ( 7.8)	2,573 ( 4.8)	2,443 (-0.7)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249 ( 1.0)	2,326 ( 3.4)	2,291 ( 3.1)	2,228 ( 3.7)	2,445 ( 6.7)	2,390 ( 7.3)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6% 증가한 179.8시간(월력상 근로일수 0.7일 증가)

○ 2016년 11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0.7일 ↑)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5.6시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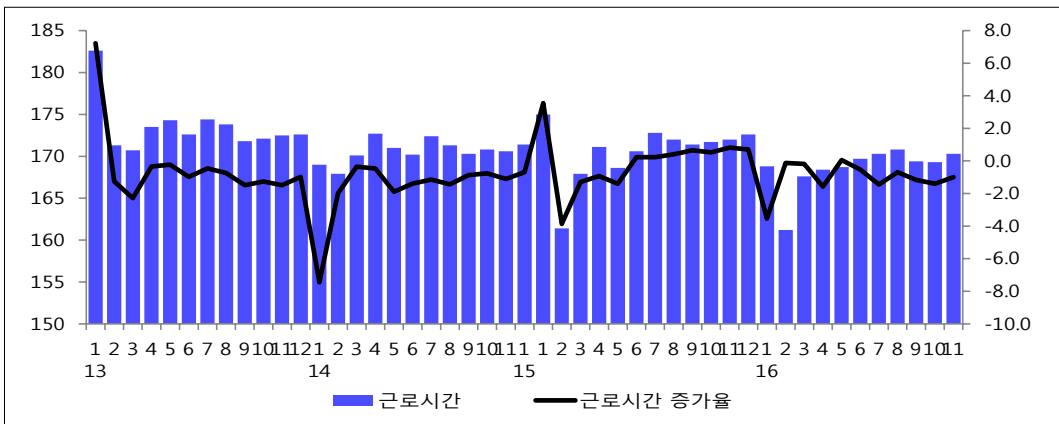
-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87.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5시간(3.6% ↑) 증가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6시간(1.4% ↓) 감소함.

— 2016년 1~11월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1.0% 감소한 170.3시간(근로일 수 0.2일 ↓)임.

○ 2016년 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 대비 각각 3.4%, 2.9% 증가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11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4	2015	2016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2.0 ( -0.8)	173.2 ( 0.7)	172.6 ( 0.9)	175.0 ( 3.1)	171.2 ( -0.8)	180.9 ( 3.4)
	상용 총근로시간	178.3 ( -0.7)	179.6 ( 0.7)	178.9 ( 0.8)	181.6 ( 3.2)	177.7 ( -0.7)	188.6 ( 3.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6.0 ( -1.1)	167.4 ( 0.8)	166.7 ( 0.9)	169.6 ( 3.5)	165.3 ( -0.8)	175.9 ( 3.7)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 ( 3.4)	12.2 ( 0.0)	12.2 ( 0.0)	12.0 ( 0.0)	12.4 ( 1.6)	12.8 ( 6.7)
	비상용근로시간	119.3 ( -3.7)	117.5 ( -1.5)	117.0 ( -1.5)	118.3 ( 1.7)	115.3 ( -1.5)	116.0 ( -1.9)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8.9 ( -0.6)	169.7 ( 0.5)	169.3 ( 0.5)	170.7 ( 2.8)	166.4 ( -1.7)	175.6 ( 2.9)
	상용 총근로시간	172.2 ( -0.2)	173.7 ( 0.9)	173.1 ( 0.9)	176.1 ( 3.4)	170.1 ( -1.7)	180.9 ( 2.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6.6 ( -0.6)	158.3 ( 1.1)	157.6 ( 1.0)	161.9 ( 4.7)	156.3 ( -0.8)	167.5 ( 3.5)
	상용 초과근로시간	15.6 ( 4.7)	15.4 ( -1.3)	15.5 ( -0.6)	14.3 ( -8.3)	13.8 ( -11.0)	13.4 ( -6.3)
	비상용근로시간	93.8 ( -12.9)	86.9 ( -7.4)	87.9 ( -7.1)	74.3 ( -2.4)	86.3 ( -1.8)	77.1 ( 3.8)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만 감소함.
- － 2016년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은 전년동평균대비 0.8% 감소한 171.2시간, 대규모 사업체는 1.7% 감소한 166.4시간임.
- 2016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증가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광업(6.5%)이었으며, 다음으로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5.1%), 금융 및 보험업(5.0%) 순으로 나타남.
  - － 2016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던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8.6시간)이었으며 그다음은 제조업(196.0시간)이었던 반면,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4	2015	2016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171.4(-0.7)	172.6( 0.7)	172.0( 0.8)	174.2( 3.1)	170.3(-1.0)	179.8( 3.2)
광업	179.4(-0.7)	179.2(-0.1)	178.7( 0.1)	178.0( 0.5)	177.9(-0.4)	189.6( 6.5)
제조업	185.4( 0.2)	186.3( 0.5)	185.7( 0.6)	188.4( 2.9)	183.6(-1.1)	196.0(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5(-1.7)	170.8( 0.2)	170.2( 0.2)	171.8(-1.2)	166.6(-2.1)	176.9( 3.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2.3)	177.8( 0.0)	177.1(-0.1)	176.8( 2.0)	176.2(-0.5)	185.8( 5.1)
건설업	148.5(-2.8)	147.4(-0.7)	146.9(-0.7)	147.2( 1.5)	145.2(-1.2)	148.7( 1.0)
도매 및 소매업	172.3(-0.6)	172.9( 0.3)	172.2( 0.5)	173.9( 2.7)	170.6(-0.9)	180.1( 3.6)
운수업	173.1(-2.6)	173.9( 0.5)	173.3( 0.5)	174.7( 2.1)	171.7(-0.9)	177.9( 1.8)
숙박 및 음식점업	175.2(-1.2)	175.3( 0.1)	175.0( 0.3)	177.2( 0.9)	171.6(-1.9)	178.3( 0.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1.9(-0.7)	164.3( 1.5)	163.8( 1.5)	166.8( 6.1)	162.5(-0.8)	173.6( 4.1)
금융 및 보험업	163.4( 0.4)	164.3( 0.6)	163.6( 0.6)	165.5( 3.4)	162.0(-1.0)	173.7( 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0.1(-0.7)	192.8( 1.4)	192.1( 1.5)	194.3( 2.4)	190.4(-0.9)	198.6( 2.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3.3(-0.4)	164.9( 1.0)	164.2( 1.1)	168.0( 3.8)	162.5(-1.0)	175.0( 4.2)
사업서비스업	171.9(-0.2)	173.2( 0.8)	172.4( 0.8)	176.4( 4.0)	170.7(-1.0)	181.0( 2.6)
교육서비스업	152( 0.9)	151.5(-0.3)	151.2(-0.1)	149.8( 1.6)	148.0(-2.1)	154.1(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9.6(-1.4)	171.5( 1.1)	170.8( 1.2)	172.8( 3.1)	168.9(-1.1)	177.8( 2.9)
여가관련서비스업	158.9( 0.6)	160.6( 1.1)	160.1( 1.1)	160.6( 2.1)	159.2(-0.6)	165.8( 3.2)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9(-2.7)	163.7( 0.5)	163.0( 0.4)	165.2( 3.6)	162.8(-0.1)	171.2( 3.6)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1~11월 값은 누적평균값임.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4)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산업은 건설업(148.7시간)임.

- 2016년 1~11월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평균대비 감소함.
  - － 근로일수도 0.2일 감소함.
  - －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1%)과 교육서비스업(-2.1%)이었으며,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0.4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2시간)임.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7년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50건
  - －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47건)보다 3건 많은 수치임.
- 2017년 1월 조정성립률 68.8%
  - － 1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71.0%에 비해 2.2%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 1	50	37	22	10	12	10	3	7	0	5	13	68.8
2016. 1	47	37	22	6	16	9	2	7	2	4	10	71.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심판사건

- 2017년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2,450건
  - －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2,828건)보다 378건 낮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6.1%(148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4%(774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 1	2,450	922	138	10	138	64	358	214	1,528
2016. 1	2,828	945	122	30	157	52	376	208	1,88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법원, 현대·기아차 간접공정 사내하청도 불법파견

-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2월 10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서울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와 제2민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각각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함.
- 서울고법은 이날 현대·기아차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회사는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범주에 포함시켰음.
-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을 구분하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 기준들에<sup>1)</sup> 비춰 봤을 때,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법원은 “사내협력업체가 작업내용·작업인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고 현대차가 구체적인 작업지시와 감독을 했다”며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았음.
- 또한,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거나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태도 파악했다”고 설명함.
- 현대차그룹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과 별개로 회사는 기존 노사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 7.6%

- 한국노총이 올해 월 고정임금총액 기준으로 7.6%(요구 금액 -25만 7,860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17.1%로 정하였음.

1) 재판부는 파견여부를 파견법상 파견인지 판단하는 요소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하청근로자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는지와 사내하청업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독립적 기술조직·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들었음.

- 한국노총은 2017년 2월 15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확정했음.
- 한국노총은 3인가구와 4인가구 생계비를 각각 445만 2,672원, 509만 9,186원으로 제시하였고, 여기에 통계청이 밝힌 전국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3.23명)와 한국은행 물가상승률 전망치(1.8%)를 반영해 7.6% 임금인상률을 산출하였음.
- 한국노총은 임금인상 요구율과 관련해 “2017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원수 3.23명의 표준생계비는 413만 1,459원이지만 2016년 전체 노동자 월 평균임금(337만 7,824원)과 차이가 있다”며 “일시에 임금인상이 힘든 현실을 감안해 생계비의 88%인 363만 5,684원을 기준으로 25만 7,86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함.
- 또한, 한국노총은 “현재 비정규직 임금은 151만 원으로 정규직 대비 49.2%에 불과하다”며 “17.1%(금액 25만 7,860원)를 올리면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53.3%로 개선된다”고 밝혔음.

#### ◆ 한국지엠, 노·사 간부 채용비리 사건 이후 변화

- 한국지엠 부평공장 채용·납품비리는 노·사 간부들이 하청업체 비정규직 생산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고, 납품업체 선정을 이유로 현금을 받은 사건임.
  - 한국지엠은 하도급업체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이 결원되면 매년 40~110명씩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발탁채용을 하고 있음.
  - 사측 간부들은 노조 전·현직 간부들이 돈을 받고 생산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 전략담당 인력관리팀에 지시, 성과와 면접 점수를 조작해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들 간부는 노조원들을 주기 위한 선물세트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음.
- 이번 채용비리 사건으로 인해 한국지엠은 사내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들을 엄하게 징계하고 생산직 채용 절차를 수정하기로 함.
  -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은 2017년 2월 22일 “회사는 일부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연루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반으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힘.
  - 기존에 채용과 노사관계 업무를 동시에 맡아 왔던 노사부문 업무와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생산직 직원채용 업무를 기존의 노사부문에서 인사부문으로 이관해 채용과 노사관계 업무를 이원화함.

- 2017년 2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제25대 임원 선거에서 임한택 후보를 지부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힘.
- 지부 임원선거는 비정규직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일찍 치러졌음.
- 결선 투표에서는 노조원 1만 3,556명 가운데 1만 1,888명이 참여해 87.7%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가운데 임한택 후보가 55.5%를 득표하여 당선됨.
- 임한택 당선자는 “내부 비리 문제로 조기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지엠 모든 세력들과 함께 노조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함.

#### ◆ 조선소 노조, 구조조정과 수주절벽에 정부의 대책 요구

-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대책회의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중훈 무소속 의원은 2017년 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촉구함.
-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며 2016년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에서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떠난 근로자는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올해도 대우조선해양이 2천여 명, 삼성중공업이 1천800여 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예고한 상태임.

〈표 3〉 주요 조선소 구조조정 현황 및 예상<sup>2)</sup>

		2014년 말 ~ 2016년		2017년(예정)	
		직영(원청)	사내하청	직영(원청)	사내하청
대형 조선소	현대중공업	희망퇴직/분사/강제전출	정리해고: 1만 4천 명 (업체폐업/계약해지)	회사분할	정리해고: 1만 200명 (업체폐업/계약해지)
	대우조선	희망퇴직	정리해고: 1만 명	희망퇴직	정리해고: 1만 명
	삼성중공업	희망퇴직	변동 없음	희망퇴직	정리해고: 1만 명
중소형 조선소	STX조선	희망퇴직	정리해고: 1천500명	희망퇴직/휴업	업체폐업·계약해지 다수 예상
	성동조선	희망퇴직	정리해고: 2천 명	6월 물량고갈 예정	
	SPP조선		-	3월 물량고갈 예정	
	대한조선		-	4월 물량고갈 예정	
	신아SB			폐업	
	21세기 조선			폐업	

자료: 조선업종노조연대.

2) 매일노동뉴스, 「원·하청 노동자들 "총고용 보장 노사정 협의체 구성하자"」(2017. 02) 재인용.



- 게다가 2016년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 2만 4천여 명이 업체폐업과 계약해지 되었음.
- 노동계는 조선업 원·하청 총고용 보장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요구함.
  - 이들은 ▲조선소가 벌어들인 이윤과 사내유보금을 원·하청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투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도입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하청노동자들의 대량해고에 대한 대책과 직접고용 늘리는 방안 마련 ▲줄도산을 앞두고 있는 중소 조선소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 마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함.
  - 황우찬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대표(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조선산업이 망하면 철강산업이 망하고, 철강 이후에는 한국 제조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형조선소 지원과 노동자 총고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 대우조선해양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등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앞에서 구조조정 중단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음.


#### ◆ 고용부, 2만 개 산재취약사업장 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는 2017년에 산재취약 사업장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힘.
  - 안전보건 감독은 2월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실시함.
- 전체 사고사망자의 50%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감독 비중을 대폭 늘리고(2016년 33%→2017년 43%), 연중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할 예정임.
  - 건설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해빙기(2~3월), 장마철(6월), 동절기(11월)에는 2,500개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5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비계 설치 또는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임.
-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
  -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일제 감독하고, 나아가 본사까지 감독을 확대키로 함.
  - 밀폐공간작업 보유사업장에 대한 질식재해 예방 감독과 함께 지역별 산업재해 특성에

맞추어 지방관서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임.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정기감독 시에는 사업장 1회 방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친 종합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점 감독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내실 있는 감독을 추진할 계획임.
- 감독결과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를 병행함.

####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아 2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함.
- 이번 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씨(PC)방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3.0’ 개방·공유·소통의 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함.
- 이번 점검에서는 업주들이 간과하기 쉬운 기초고용질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관련 사항에 중점을 둘 예정임.
-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6,470원/시간)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을 집중 점검함.
- 또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함.
-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함.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02-6677-1429, 문자 #1388) 또는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를 통해 무료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정재우,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